

Too much sugar! Too much sweetness!

이 이야기는 식빵 봉지가 오비완 케노비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부터 시작된다. 정확한 시작은 아침조례가 일어나기 10분 전인 7시 50분이었다. 책상의 주인이 이 식빵 봉지를 보고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누가 아침을 안 먹고 온 거야?”

와 같은 안이한 말이었다. 그야 식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렇게 봉지가 매일같이 그의 책상에 쌓인 지 일주일이 지난 때에 드디어 그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장난이 심한 것 같은데……. 이거 주인 아는 사람? 아나킨, 혹시 누가 이거 놓고 간지 알아?”

“글쎄, 오비완. 나라고 알겠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오비완은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손에 들린 식빵 봉투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소위 그의 친한 친구라 불리는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뭐가 그리 심각한 고민을 하나며 그의 손에 들린 봉투를 낚아채 주욱- 하는 소리와 함께 겉의 면을 찢고 빵 하나를 입에 물었다.

“버리면 아까우니까 먹어.”

아나킨은 그렇게 빵을 우물거리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오비완에게 핀잔을 주었다. 오비완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눈썹과 눈썹 사이를 찡그렸다. 그리고 눈을 몇 번 깜박이며 아나킨을 바라보다가 아나킨이 건네주는 봉투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스튜존 베이커리’

그곳은 오비완이 가장 잘 찾는 빵집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는 그의 작은 보금자리이다. 오비완은 머리를 열심히 굴리며 누가 이곳을 다녀가 일부러 자신의 자리까지 와서 빵을 놓았는지 생각해보기로 하지만 친구들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아나킨의 말을 따르고자 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다.

-식빵 사건 이후 일주일도 더 지났을 때

“좋은 아츠... ...!”

이제 오비완의 책상 위를 보면 작은 쿠키 상자가 올려져 있다. 오비완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그걸 보자마자 교실 문을 나가려고 뒷걸음칠 했다. (아나킨으로 인해 다시 교실로 들어가야 했지만) 식빵에 이어 쿠키라니. 누가 자신에게 실험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으로 식빵 봉지를 볼 때처럼 쿠키 상자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았다. 단지 ‘쿠키’이기에 놀란 것은 아니다. ‘먹고 싶었던 쿠키’가 책상 위에 있어서 놀란 것이다. 최근에 오비완이 속마음으로 ‘아 쿠키 먹고 싶다.’ 라고 생각만 했지 밖으로 생각을 내뱉은 적이 없기에 당황한 눈치를 보였다.

“이거 나를 살찌워서 잡아먹으려는 마녀의 계획이 아닐까, 아나킨.”

라고 말하자마자 후회가 되는 듯 오비완은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다. 아나킨은 이 이야기를 꺼내니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느냐고 코웃음을 쳤다. 그러고는 설마,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 있다 해도 헨젤과 그레텔이 꾀로 마녀를 물리치듯 그러면 될거라고 내가 그레텔 해주랴? 라며 너살 좋게 이를 드러내고 웃어보았다. 오비완은 그 말을 굳게 믿어버렸다. 불쌍한 오비완, 그를 조금이라도 의심해보면 좋을 텐데. 오비완은 이번에 또 아무 의심 없이 친구가 원하는 대로 작게 포장된 상자 안에 있는 쿠키를 냐금냐금 해치웠다.

큰일은 밸런타인데이 때 일어났다.

‘밸런타인데이’,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뉜다. 두근거리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 그리고 덤덤한 자들이 있다. 오비완과 아나킨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도 딱 이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며 하루를 보낸다. 누가 고백을 하고 누가 차였는지 아니면 이어졌는지 그 이야기들을 직접 보기 위해 이 하루를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튼, 이 비공식적인 학교의 대 이벤트를 뒤로하고 그 세 가지의 반응 중 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아나킨과 오비완은 쉬는 시간 교실에서 태평하게 담소를 주고받았다.

“아야, 이가 썩었나 봐...”

“그 쿠키들을 다 먹었던 말이야? 오비완?”

“응... 그래도 준거니까 다 먹긴 했지... 다행히도 오늘은 없었지만. 그리고 아나킨 네가 전에 말했잖아. 버리면 아까우니까 먹는 게 좋겠다고...”

“그렇다고 이가 썩을 때까지 먹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너 똑똑한 거 아니었어? ㅋㅋ.”

딱 청소년 학생들이 말할 장난이나 치며 아나킨은 오비완의 머리를 한 손으로 두드려 보았다. 오비완은 아나킨에게 지기 싫다는 듯이 붉은 얼굴로 전에 아나킨이 벌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아나킨 말에 반박했다. 서로 네가 바보다 아니다 네가 더 바보다 할 사이 같은 반 학생이 아나킨의 이름을 창문 너머로 불렀다.

“야, 아나킨! 우리 동아리 선배가 너 부르는데? 이야~ 잘 해봐~”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바로 ‘밸런타인데이의 고백’.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며 고백하면 잘 이루어진다는 미신. 그 미신 하나로 아나킨을 찾은 거라고 주위의 학생들은 암묵적으로 지금 상황을 납득하였다. 아나킨은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오비완과 시선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가려 했다. 오비완이 이 말만 꺼내지 않았더라면 더 이어졌을 텐데.

“가 봐야 하지 않아, 아나킨?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조금 전에 들었잖아.”

“아, 그랬지. 근데?”

“근데 가 아니잖아. 적어도 가는 성의를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 ...”

아나킨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오비완을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밸런타인데이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둘이었는데 (솔직히 오비완은 아나킨이 개인 사물함에 쌓여있는 러브레터랑 초콜릿 상자를 보고 태평하게 행동한 것에 뭐라 반응해야 할지 몰라 분위기에 묻어가는 거긴 했지만.) 한 명이 드디어 이 분위기에

서 졸업한 것 같아 오비완은 뿌듯하기도 했고 한 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다. 괜히 신경 쓰면 아나킨과 그 선배의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 오비완은 오늘 혼자 하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오늘 널 위해 시간 비워주는 줄 알아. 나중에 고맙다고 해야 될걸?’

오비완은 기특한 자신의 어깨를 툭, 툭 두드리며 마지막으로 나오는 학생답게 교실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는지 두고 가는 물건은 없는지 보고 교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자신의 사물함으로 걸어가 교과서를 넣으려고 할 때 그 행동을 즉시 멈추었다.

“오늘은 책상 위에 없어서 인제 그만둔 지 알았는데... ..”

오비완은 사물함 안에 있는 물건이 허상의 물건이 아닌지 다시 보기 위해 눈을 질끈 감았다가 몇 초가 지난 뒤 다시 떴다. 가짜가 아니다. 그의 파란 사물함 안에는 하트 모양의 초콜릿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오비완의 멈추어진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상황을 냉정히 판단했다.

먼저 이 초콜릿들은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둔 것들과 같이 동일 인물이 준 것인지 생각해보기로 했다. 같은 빵집에서 만든 것들이니 아마 그렇게 보아도 되지 않을 까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사물함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자신의 뒤에 있길래 반사적으로 팔을 휘두르려고 했다.

“사람 맞겠다, 맞겠어. 친구도 못 알아보다니, 흑.”

“아나킨?”

오비완은 토끼 같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더니 빨쭈만지 위를 향했던 팔을 내렸다. 아나킨은 특유의 능글거리는 표정으로 오비완에게 말을 걸었다.

“맞았으면 최소 골절이 2주간은 찼을 거야, 오비완. 너 생각보다 힘이 세잖아? 지금 팔을 보니 집에 갈 거지? 빨리 가자.”

오비완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방금까지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것을 아나킨에게 털어내 보였다.

“아나킨. 그 있지. 그 선배랑은... ...”

“응? 뭐라고?”

다시 숨을 삼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떠올렸는데 말이야.”

“그래? 그게 뭔데.”

아나킨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는 오비완을 내려다보았다. 오비완은 여기서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신의 턱을 쓸어내리며 결심을 내렸다.

“내 사물함 비밀번호 아는 사람……. 나랑 너밖에 없지?”

“뭐?”

“예전에 한 번, 내가 교과서 잊고 집에 안 가져와서 네가 가져다준 적 있잖아. 분명 그랬어. 맞지?”

아나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오비완이 어디까지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서 그가 말을 더 이어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튜존 베이커리 우리가 정말, 정말 어렸을 때 딱 한 번 같이 갔었지?”

“근데?”

“... ...혹시 말이야 아나킨.”

“응, 듣고 있어 오비완.”

오비완은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너야?”

“너무 늦게 안 거 아니야? 오비완 케노비?”

아나킨은 소꿉친구의 가면을 벗고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은 표정을 오비완한테 보여줬다. 오비완은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끼며 벌렁벌렁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고자 했다.

오비완의 머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는지 오비완은 입을 살짝 벌린 채 아나킨을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다.

‘아니, 언제부터? 그것보다 왜 준거지? 설마 진짜 날 잡아먹으려고 생각한 건가?’



그럴 리가. 그럼 왜... ...? 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속으로 하며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는 데 아나킨이 말을 툭 하고 던졌다.

“집에 가면 잔소리 듣겠다 오비완. 빨리 가거나 하자.”

하고 별소리를 하지 않는 거 싶더니.

“오늘부터 1일인 거다?”

“뭐라고?”

“내가 먹을거리의 범인인 것을 알아낸 머리로 한번 잘 알아봐~ 헨젤 씨.”

인제 그만 가자. 라고 덧붙이며 아나킨은 오비완의 비어있는 손을 이끌며 학교 정문을 빠져나갔다.

오비완은 자신을 빼고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 잘난 머리로 받아들이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밸런타인데이의 바로 다음 날, 아나킨에게 고백했던 선배가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소문 및 아나킨이 고백을 거절했다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뉘어 가십거리기도 했고 아나킨이 자신을 전처럼 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오비완은 아나킨의 말이 진심인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비완은 가시방석에 앉은듯한 표정으로 아나킨을 쳐다봤다.

“저기 아나킨.”

“응, 오비완. 왜 그래?”

“꼭 내가 네 허벅지 위에 앉아 있어야겠니. 적어도 내 의자에 앉으면-”

“안돼. 왜냐면 네 전용 의자는 바로 나니까.”

항상 돌아오는 쉬는 시간. 동시에 모두의 시선이 쏠린 것 같은 시간을 오비완은 건디기 곤란한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번 아나킨에게 껄속말해본다.

“아나킨, 네가 불편할까 봐 그래.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불편하니까 걱정하지 마 오비완. 너의 걱정은 고맙지만... ... 글썄 지금은 이렇게 있는 게 좋은데?”

오비완은 마른세수를 해야만 했다. 하지 않으면 자기 얼굴이 어떨지 모두에게 보여주는 꼴이 되는 것 같아 두 손으로 붉은 얼굴을 쓸어내렸다.

설마 그 마녀가 자신이 믿는 아나킨 스카이워커일 줄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아, 그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빼고.